

세계 최연소 우승...골프역사 바꿨다

(14세 9개월)

골프신동 뉴질랜드 교포 고보경 스토리



서울 실내연습장서 5세때 골프 배워
뉴질랜드 이주 후 주니어 무대 평정
형편 어려워 LPGA 초청대회 포기도
호주투어 우승으로 골프천재 떠올라

1월29일 세계 골프무대에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시드니에서 열린 호주여자골프투어 뉴 사우스 웨일즈 오픈에서 14세 아마추어 골퍼가 우승했다. 뉴질랜드 동포 리디아 고(14·고보경)는 2007년 일본남자프로골프 먼싱웨어오픈에서 우승한 이시카와 료(당시 15세 8개월), 유럽여자프로골프 ANZ 레이디스 마스터스 정상에 오른 양희영(당시 16세192일)이 보유한 세계 남녀프로골프 최연소 우승 기록을 새로 썼다. 그의 나이 14세 9개월. 호주를 발각 뒤집어 놓은 골프신동을 유럽여자프로골프 RACV 호주 레이디스 마스터스가 열리는 골드코스트의 로열 파인 골프장에서 만났다.

●뉴질랜드 힙션 천재소녀

서울에서 태어난 리디아 고는 5살 때 동네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실내연습장에서 골프를 배웠다. 당시는 박세리와 김미현 등이 미 LPGA 투어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시기여서 골프를 하면 관심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리디아 고의 어머니 현봉숙 씨의 설명이다.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현 씨는 “너무 어렸던 탓에 프로들이 잘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20만원 하던 레슨비에 5만원을 더 주면서 가르쳐 달라고 했다”며 처음 골프를 가르쳤을 때를 떠올렸다. 2개월 정도 지날 무렵, 그때부터 골퍼에 소질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스윙폼도 예쁘고 실력이 쑥쑥 늘었다.

골프를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뉴질랜드로 이주했다. 6세 때다. 골프장 앞에 있는 집을 얻었다. 9세 때 첫 대회에 나섰다. 보통은 11세 때 대회에 나갈 수 있지만 코치의 추천으로 조금 빨리 시작했다. 이때부터 두각을 보이기 시작했다. 첫 대회에서 지역 아마추어 골퍼들과 겨뤄 입상했다. 11세가 되던 해부터는 뉴질랜드 주니어 무대를 평정하기 시작했다. 노스 뉴질랜드 챔피언십을 3회 연속 우승했고, 2008년엔 뉴질랜드 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했다. 고교는 물론 대학생까지 출전하는 대회에서 12세 꼬마가 준우승하면서 큰 화제가 됐다. 이듬해엔 당당히 우승 트로피를 들어



29일 호주여자골프투어 뉴 사우스 웨일즈 오픈에서 정상에 오르며 남녀프로골프 최연소 우승 기록(14세9개월)을 경신한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고보경)가 연습 그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렸다.

뉴질랜드를 넘어 호주와 미국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다. 작년 호주 아마추어 우승에 이어 프로 대회인 호주여자오픈에서는 상위권에 입상하며 아마추어 1위에 올랐다. 2011년 US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도 스트로크 부문 공동 1위에 올라 현지 언론으로부터 미셸 위, 알렉시스 톨슨에 이은 차세대 여자골프 스타로 주목받았다. 현재는 뉴질랜드 국가대표다.

●가정형편 어려워 초청대회도 출전 포기

리디아 고에 대한 관심은 해외에서 먼저 시작됐다. 작년 에비앙 마스터스에서 그를 초청했다. 하지만 출전하지 못했다. 현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초청을 받았지만 경비가 만만치 않았다. 결국 대회에 나가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작년 ANZ 레이디스 마스터스 때도 같은 이유로 출전을 포기했다. 뉴질랜드에서는 철저하게 아마추어의 후원을 금지하고 있다. 아마추어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 씨는 “뉴질랜드로 올 때만 해도 형편이 좋았다. 하지만 점점 생활할수록 부족했다.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골프를 가르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게 늘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직은 열매떨기 기분은 좋아요”

우승 이후 호주에서 난리가 났다.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하며 골프천재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렸다. 우승한 이후 인터뷰만 수십 차례 진행했다. 심지어 이번 대회 출전을 위해 바로 시드니에서 골드코스트로 이동해야 했지만 다음 날 아침까지 정신이 없었다. 오전 5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11시까지 8차례 인터뷰를 했다.

RACV 호주 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리디아 고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미 LPGA 투어 스타 알렉시스 톨슨의 뒤를 이을 스타로 점찍었다. 리디아 고는 “계속 대회에 출전하는 게 쉽지는 않다. 힘도 들지만 대회에 나가서 선배 프로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아직은 관심 받는 게 어색하다는 그녀는 “그렇지만 기분은 좋다”며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을 즐겼다.

골드코스트(호주 퀸즐랜드 주) |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고보경은? ▲1997년 4월24일 서울 출생 ▲키 165cm ▲뉴질랜드 파인 허스트 스쿨 11학년 ▲뉴질랜드 골프 국가대표(현재) ▲2012호주여자골프투어 뉴사우스 웨일즈 여자오픈 우승 (세계 남녀프로대회 최연소 우승-14세9개월) ▲세계 골프 아마추어 랭킹 여자 1위

태극낭자들, 준우승 징크스 깨나

RACV 호주 레이디스 마스터스서 시즌 첫승 사냥

한국여자 프로골퍼들이 호주에서 시즌 첫 우승 사냥에 나선다. 김하늘(24·비씨카드) 서희경(26·하이트) 유소연(22·한화) 이보미(24·정관장) 등 한국 선수들은 2일부터 호주 퀸즐랜드 주 골드코스트의 로열 파인 골프장에서 열리는 RACV 호주 레이디스 마스터즈(총상금 50만 호주달러)에서 시즌 첫 경기를 갖는다. 2006년 양희영(20·KB금융그룹)이 아마추어 자격으로 출전해 16세의 나이로 이 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다. 하지만 프로선수들은 역대 5번이나 준우승 징크스에 시달렸을 만큼 정상에 서지 못했다.

1월 31일 연습라운드에 나선 태극낭자들의 표정은 모두 밝았다. 1월 초부터 호주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해온 이보미는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다. 현재 컨디션도 좋고 새로 바꾼 스윙도 마음에 든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하늘은 “필승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작년 KLPGA 투어에서 2승을 합작하며 환상의 호흡을 맞춘 캐디 박상진 씨가 이 대회에 함께 나선다. 이밖에 세계 최연소 프로대회 우승 기록을 쓴 14세 골프천재 리디아 고(고보경)이 코리언돌풍에 동참한다.

골드코스트(호주 퀸즐랜드 주) | 주영로 기자

2012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 결과

구분	1라운드	현소속	2라운드	현소속
순위	선수	지명구단	선수	지명구단
1	김시래(G)	모비스	노승준(F)	KCC
2	최부경(C)	SK	이동건(G)	동부
3	김승원(C)	오리온스	이동하(F)	삼성
4	최현민(F)	KGC	정준원(F)	전지랜드
5	박래훈(G)	LG	경희대	KT
6	김명진(G)	KT	단국대	조상열(F)
7	차바위(F)	전지랜드	한양대	—
8	박병우(G)	삼성	중앙대	박석환(G)
9	박지훈(F)	동부	명지대	김건우(F)
10	장민국(F)	KCC	연세대	—

※3라운드서 모비스가 1순위로 장동영(목포대), KGC가 4순위로 조찬형(고려대) 지명
※G는 가드, F는 포워드, C는 센터

가드 김시래, 전체 1순위로 모비스행

SK, 센터 최부경 선택...총 19명 1군 신인으로 지명



대항 최고의 가드 김시래(23·명지대·사진)가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모비스 유니폼을 입었다.

모비스는 31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2012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얻어 김시래를 지명했다. 김시래는 키 178.4cm의 단신 포인트가드임에도 지난 농구대잔치에서 득점·어시스트·수비수를 독식하며 일찌감치 이번 드래프트 최대 어로 주목 받았다. 지난해 평균 16.6점, 5.9리바운드, 7.6어시스트를 기록해 프로무대에서도 즉시전력강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체 2순위 지명권을 얻은 SK는 센터 최부경(23·건국대)을 택했다. 키 200cm, 몸무게 106.5kg의 최부경은 대학 최고의 센터로 꼽힌다. 1대1 능력도 출중해 함지훈(상무)처럼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최부경과 쌍벽을 이뤘은 센터 김승원(23·연세대)은 3순위 지명권을 전 오리온스에 낙점됐다.

이밖에 KGC는 포워드 최현민(22·중앙대)을 1라운드 4순위로 지명했고, LG와 KT는 각각 가드 박래훈(23·경희대)과 가드 김명진(23·단국대)을 1라운드에서 뽑았다. 배구 스타 장운창 경기대 교수의 아들인 포워드 장민국(23·연세대)은 1라운드 10순위로 KCC에 지명돼 눈길을 끌었다. 또 2부 대학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포워드 장동영(25·목포대)이 3라운드 1순위로 모비스에 호명됐다. 10개 구단은 이날 드래프트 참가자 41명 중 19명을 1군 신인으로 지명했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트위터 @jace2020

편집 | 김보은 기자 kne81@donga.com 트위터 @ed_silver

후레쉬케어
스포츠조선 베스트브랜드선정

※소비전력을 꼭 비교해 보세요!

배상품책임보험
1억원가입

2012년형 초절전제품 출시

'전기세' 하루 8시간 사용시 한달 2~4만원대로
올 겨울을 후끈후끈하게~

더욱 강력해진 후레쉬케어 온풍전기난로

전기세 꼭 확인하시고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전기세 문의하시면 친절히 산출해드립니다)

100% 국산 제품
"A/S 1년 보장"

다우하이텍(구. 한국전자)의 기술력과
(주)이텍에이엔티의 신뢰로
품질과 AS를 보장합니다.

■난방비(유류비대비) 약 70~80% 절감!
■강력난방! 냄새, 연기, 소음 NO!
■동급대비 2배의 강력한 화력!

※ 제품의 색상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GB-2400S 158,000원

• 나노탄소 온풍기(색상: 진한회색)
• 제품규격: 365×675mm / 난방면적: 49.5㎡
소비전력: 2.4kw (강) / 1.2kw (약)

상업용
업소용
사무실용

GR-4000S 178,000원

• 세라믹 온풍기(색상: 진한회색)
• 제품규격: 365×675mm / 난방면적: 66㎡
소비전력: 3.2kw (강) / 1.6kw (약)

상업용
업소용
사무실용

SHS-2400T 138,000원

• 나노탄소 히터(색상: 옐로우)
• 제품규격: 335×615mm / 타이머 절전기능
소비전력: 0.99kw (강) / 0.49kw (약)

가정용

GB-980 99,000원

• 가정용 나노탄소 히터(색상: 옐로우)
• 제품규격: 335×615mm / 타이머 절전기능
소비전력: 0.99kw (강) / 0.49kw (약)

가정용

한 기로 산 정 에

입전용(강) 10kw일때 하루 8시간 사용시 전기요금
• 1.2kw(약) X 8시간 X 30일 = 288kwh
288kwh X 83.3원 = 23,990원(부가세별도)
• 2.4kw(강) X 8시간 X 30일 = 576kwh
576kwh X 83.3원 = 47,981원(부가세별도)
※산정요금에 기준요금을 합치시면 됩니다.

한 기로 산 정 에

입전용(강) 10kw일때 하루 8시간 사용시 전기요금
• 1.6kw(약) X 8시간 X 30일 = 384kwh
384kwh X 69.1원 = 26,534원(부가세별도)
• 3.2kw(강) X 8시간 X 30일 = 768kwh
768kwh X 69.1원 = 53,068원(부가세별도)
※산정요금에 기준요금을 합치시면 됩니다.

만 매 원
(주)이텍에이엔티 특판사업부

계좌번호 신한 100-026-378827
예금주 (주)이텍에이엔티

제품문의 02) 3142-7666

인형제작사
김스스포츠(Kim's Sports)의
공기인형
아름다운 동행
"티나"(Teena)
SIZE : 160cm
구입시 배송되는
인형의 실물사진
입니다. (최고급형)

독신 남성들에게 외로움,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정과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건강한 대안으로서 긍정적
도움을 주는 공기주인형 인형 "티나"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공기 제거시 부피가 작아 휴대와 보관이 편리하며 독신
남성이나 출장이 잦은 분 또는 공사현장,원양어선 선박업등
일정지역에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며 특히 혼자 생활하는 분들에게 선물용으로도 적합하여
주변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공기인형 가짜조심!!

본사의 공기인형 인기를 틈타, 품질이 조잡한 중국산 물건을
가지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고, 사람의 실물과 똑같이, 흔들고
떨리며, 주문량이 폭주하고, 품인지 생시인지 헷갈린다는 등
말도 안되는 거짓말과 또한 제품이름만 살짝바꾸어 가면서
소비자를 속이는 판매자가 잇사오니 제품사진이 없는 허위
광고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공기인형은 사람과부
같지 않으며 열도없고, 흔들리지 않고, 즐거운 비명소리로 인형이
말을 할 수 없어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제품 구입은 반드시
인형을 전문으로 만드는 제작업체를 선택해야 차후 A/S및
부품의 마모나 분실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박사이즈 구제관리 인형 제작사,
김스스포츠(Kim's Sports)
문의 010-3500-5324, 02)423-0020
※일반 제조사업자 직영 광고입니다.※